제7강 김명인의 「동두천 1」

(1교시)

동두천 1

기차가 멎고 눈이 내렸다 그래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신호등
불이 켜지자 기차는 서둘러 다시 떠나고
내 급한 생각으로는 대체로 우리들도 어디론가
가고 있는 중이리라 혹은 떨어져 남게 되더라도
저렇게 내리면서 녹는 춘삼월 눈에 파묻혀 흐려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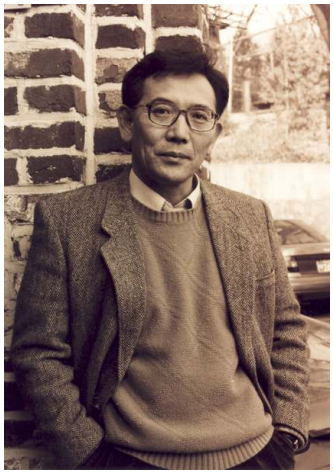
우리가 내리는 눈일 동안만 온갖 깨끗한 생각 끝에
역두(驛頭)의 저탄더미에 떨어져
몸을 버리게 되더라도
배고픈 고향의 잊힌 이름들로 새삼스럽게
서럽지는 않으리라 그만그만했던 아이들도
미군을 따라 바다를 건너서는
더는 소식조차 모르는 이 바닥에서

더러운 그리움이여 무엇이
우리가 녹은 눈물이 된 뒤에도 등을 밀어
캄캄한 어둠 속으로 흘러가게 하느냐
바라보면 저다지 웅크린 집들조차 여기서는
공중에 뜬 신기루 같은 것을
발밑에서는 메마른 풀들이 서걱여 모래 소리를 낸다

그리고 덜미에 부딪혀 와 끼얹는 바람
첩첩 수렁 너머의 세상은 알 수도 없지만
아무것도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으리라
안으로 굽혀지는 마음 병든 몸뚱이들도 닳아
맨살로 끌려가는 진창길 이제 벗어날 수 없어도
나는 나 혼자만의 외로운 시간을 지나
떠나야 되돌아올 새벽을 죄다 건너가면서

1. 김명인에 대하여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김명인은 1946년 경북 울진에서 태어났다. 1969년 고려대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고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시단에 데뷔한 그는 시집으로 『동두천』,『머나먼 곳 스와니』,『물 건너는 사람』,『푸른 강아지와 놀다』,『바닷가의 장례』등을 냈다. 김달진문학상, 소월시문학상, 동서문학상, 현대문학상, 이산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2. 중심을 관류하는 이미지

* 역두의 저탄더미에 떨어져 내리는 눈 : 눈-흰색-허공-관조 / 탄더미-검은색-현실

3. 의인화

* 눈물의 의인화 :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리움을 부른다. '눈-눈물-그리움'의 연결된 이미지.

4. 득의의 표현

* 우리 서정시가 수없이 되풀이해서 노래한 그리움의 세계가 매우 독특한 자리를 김명인의 시에 내어주게 되는 득의의 표현 : '더러운 그리움'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